

악자지껄 미술 수업 'ART야 놀자'

“색종이를 곱게 잘라 여러분의 꿈이 담긴 책을 만들어 보세요. 표지에는 사진을 붙이고, 말 풍선도 만들어 하고 싶은 말도 담아보세요.”

1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운림동 학운초등학교(교장 박형복) 다목적실에서는 6학년5반 아이들의 이색 미술 수업인 한창이었다. 조용히 이론 수업을 듣거나 책상에 앉아 각자 그림을 그리는 여느 미술 수업과는 달리, 이날은 아이들의 악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장차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박유진(12)양은 주황색 책 표지에 잡지에서 오린 문화재 그림을 붙여 책표지를 만들었다. 새끼 손가락 만한 나뭇가지를 붙여 벗을 냐고, 잡지와 책에서 오린 역사 이야기도 오려 붙여 책을 완성했다.

또 요리사가 꿈인 김형진군은 다양한 음식과 요리법을 책 안에 담아 맛깔스러운 자신만의 책을 만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09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열린 이날 'ART야 놀자'는 인근에 위치한 우제길미술관에서 주관했다. 'ART야 놀자'는 우제길미술관의 학예연구사와 작가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미술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3일 첫 수업을 시작해 오는 12월11일까지 10차례 작가와의 만남, 마스크트 만들기, 설치작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수업은 서양화가 한은혜씨가 교사로 나서 30여명의 학생들과 '꿈을 담은 북아트 만들기'를 진



19일 오전 광주 학운초등학교 아이들이 'ART야 놀자' 수업에서 자신들이 만든 아트북을 펼쳐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제길미술관 학예연구사·작가들

광주 학운초등학교에 찾아가 수업

학생들 작품 모아 다음달 전시회도

행했다. 또 우제길미술관의 학예연구사 3명이 보조강사로 아이들의 창작을 도왔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색다른 미술 수업에 아이들의 관심도 컸다. 'ART야 놀자'의 모든 프로그램도 미술관 학예연구사와 아이들이 함께 짰다. 아이들은 "재미가 있어 야 한다. 움직이는 작품(설치)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등의 의견을 냈고, 학예연구사들은 이를 반영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 때문에 다른 수업에 비해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학생회장 조재훈(12)군은 "미술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작가들이 직접 수업을 하니 아주 재미있고, 신기하다"고 말했다.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 아이들은 지난 13일 열렸던 '작가와의 만남'에 참여하

디오 설치작가 진시영씨에게 "시간이 지나 영상이 낡으면 작품의 가치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등 송곳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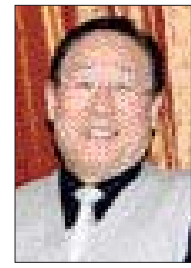
또 오는 30일부터는 4차례에 걸쳐 조각가 김강석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설치 작품을 만들기로 했다.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설치 작품은 틈을 꾸려 아이디어 회의를 한 뒤 재활용품을 이용해 창작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ART야 놀자'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한 작품을 모아 오는 12월22일~29일 우제길 미술관에서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박형복 교장은 "아이들이 미술관을 즐겨 찾고, 화가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예술 교육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영만 교수 위한 '특별한 음악회'

내일 호남신대서 41년 교직 마감 기념 세 딸·사위·동료 교직원·제자들 무대에 '교회음악의 이해' 출판·기념음반 녹음도



라씨의 남편인 테너 안갑열(45)씨 역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인이다.

특히 세자매는 부친의 정년 퇴임을 기념해 찬송가와 복음성이 12곡을 담은 기념음반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를 녹음하기도 했다.

41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는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임영만 교수를 위한 뜻깊은 행사가 진행된다.

호남신학대는 21일 오후 2시 호남신학대 음악관 예음홀에서 '임영만 교수 송송음악회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음악을 전공한 임교수의 세 딸과 사위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며 강양은·임해철 교수 등 동료 교직원과 제자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

광주예술고 동창으로 피아노를 전공한 큰 딸 리리(38·광주시립합창단 반주자)씨와 바이올린 비올라를 전공한 소라(35), 아름(30)씨는 모두 독일에 유학생활을 했고, 리

지역의 유일한 교회음악 이론 전문가인 임 교수는 지금까지 7권의 저서와 2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정년 기념으로 이번에 대표 논문을 골라 '교회음악의 이해'를 출간했다.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창립 때부터 함께 해온 임교수는 "정년 후에도 교회음악연구소를 운영하며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봉사활동도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62-650-1560~1.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효사랑·다문화가족 위한 '전국실버국악대회'

21~22일 광주시민회관

효사랑,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2회 전국실버국악대회가 21일~22일 광주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사)동초체 서봉 판소리진흥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특히 국악 전문가 뿐 아니라 노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문화에서 소외된 다양한 계층들을 아우르는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가 부문은 실버부 판소리, 국악체합 한마당, 학생부 판소리 등이며 신인부, 실버부, 일반부, 외국

인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경연종목은 판소리 5바탕, 민요, 잡가 합창, 가야금 병창 등이다.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자제

에서는 문명자 예술단의 가야금병창, 임방울국악계에서 일반부 장원을 수상한 송혜원씨의 판소리, 송은숙씨의 가야금 산조, 서봉에 인희의 남도민요, 방성춘·송재영이 꾸미는 '어사 상봉막' 등이 공연된다.

본 경연은 22일 오전부터 열린다. 문의 062-652-4298.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빛소리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

21~22일 광주문예회관

110여명 참여 대형 무대

빛소리오페라단(총감독 최덕식)이 '사랑의 묘약'을 무대에 올린다. 21~22일 오후 4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18번째 정기공연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은 지역의 중견 성악가와 대구 그랜드심포니오케스트라, 광주대 합창단 등 110명이 참여하는 대형 무대다.

도니제티의 대표작인 '사랑의 묘약'은 사랑을 얻기 위해 돌팔이 약장수에게 싸구려 포도주를 산 주인공이 이 약을 사랑의 묘약으로 믿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유쾌한 작품이다.

아름다운 곡들이 많지만 특히 남자 주인공 네모리노가 부르는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유명하다.



주인공 네모리노 역은 김희창씨가 맡았으며 그가 사랑하는 아디나 역으로는 주경휘·고미현씨가 출연한다. 그 밖에 김관현·유준상·마명준·최준원·김안나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지휘는 이일구(김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씨, 연출은 이영기(계명대 교수)씨가 맡았으며 구천(합창지휘), 박경숙(안무)씨가 함께 무대를 꾸몄다. (사)빛소리오페라단은 지금까지

'마술피리', '라보레', '유쾌한 미망인' 등을 무대에 올렸으며 '무등동동', '한국에서 온 편지', '장화 왕후' 등 창작 오페라를 공연하고 있다.

특히 오페라를 접하지 못한 섬 지역 등 오지와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는 등 문화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문의 062-227-7442.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기억속으로'

서양화가 김희재 개인전 '기억속으로'

3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서양화가 김희재씨가 오는 3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들뜬에 피어난 엉겅퀴 등 시들어 가는 꽃을 표현한 '기억속으로' 연작을 선보인다.

'기억속으로' 연작은 검은 색을 배경으로

꽃과 나비를 치밀하게 묘사했고, 넉넉한 여백을 뒤 화면에 안정감을 줬다. 말라버린 잎과 줄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황량한 느낌을 만들어 냈다.

김씨는 중앙대 회화학과 졸업한 뒤 일본 문화원 초대전, 프랑스 파리 한국 구상작가 초대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223-66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자없는 트라이슈머 시트방수!
[탈기름, 탈냄]!

트라이슈머 시트방수로 원복만 단원요라까지!!

10621511-0444

아이엘리시아

눈진기, 피로, 세피나, 각종 코팅 및 렌즈 (300여 편)

소코(렌즈) : 1인서, 12인서, 24인서, 32인서
(대모(사용)) : 12인서, 24인서, 32인서

062-671-1199